

(2016. 6. 25 시행) 서울시 9급 기출문제 해설 [국어 : A책형]

[안 한 섭 선생님]

제일고시학원(중앙로점/충남대점) www.okpass.com

1. 다음 중 표준어로만 묶인 것은?

- ① 꼬나풀 - 새벽녘 - 샅쟁이 - 떨어먹다
- ② 뜯게질 - 세째 - 수평아리 - 애닭다
- ③ 치켜세우다 - 사글세 - 설거지 - 수강아지
- ④ 보조개 - 솟양 - 광우리 - 강남콩

정답 ③

오답 해설:

- ① 샅쟁이 → 살쟁이/샷, 떨어먹다 → 털어먹다
- ② 세째 → 셋째, 애닭다 → 애달프다
- ④ 광우리 → 광주리, 강남콩 → 강남콩

2. 다음 중 ㉠~㉣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뼈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 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굽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른하지 않았다.

들으니 ㉡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병긋거리며 첫마디로,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쇼.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째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먹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주었다. 포도값을 물어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 이태준, 「달밤」 -

- ① ㉠: 황수건의 행위를 통해 참외 장사가 안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 ② ㉡: 황수건에 대한 정보가 '나'에 의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③ ㉢: '포도'는 장사 밀천을 대준 '나'에 대한 황수건의 고마움의 표시이다.
- ④ ㉣: 인물을 바라보는 '나'의 호의적인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참외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참외 장사가 안될 것을 예측할 수는 없다.

3. 다음 중 음운변동의 성격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 ① ‘옳다’는 [올타]로, ‘옳지’는 [올치]로 발음된다.
- ② ‘주다’와 어미 ‘-어라’가 만나 ‘쥐라’가 되었다.
- ③ ‘막혀’는 [마켜]로, ‘맞힌’은 [마친]으로 발음된다.
- ④ ‘가다’와 어미 ‘-아서’가 만나 ‘가서’가 되었다.

정답 ④

해설: ‘가아서’가 ‘가서’로 되는 것은 음운 탈락(동음탈락)

오답 해설:

- ① ‘옳다’는 [올타]로, ‘옳지’는 [올치]로 발음된다. → 자음 축약
- ② ‘주다’와 어미 ‘-어라’가 만나 ‘쥐라’가 되었다. → 모음 축약
- ③ ‘막혀’는 [마켜]로, ‘맞힌’은 [마친]으로 발음된다. → 자음 축약

4.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 ① 그 가방에 소설책 한 권이 들어 있었다.
- ② 넓은 들판에는 농부가 한들 눈에 떨 뿐 한적했다.
- ③ 두 사람은 서로 다투다가 화해했다.
- ④ 보따리에서 석류가 두세 개 굴러 나왔다.

정답 ②

해설: ‘한들’은 ‘한들이 아니다’에서처럼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나 ‘명사’가 된다. 여기서는 수사이다. 나머지는 조사가 붙을 수 없고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므로 관형사이다.

[I] 「수사」

하나나 둘쯤 되는 수.

¶ 넓은 들판에는 농부가 한들 눈에 떨 뿐 한적했다.

[II] 「명사」

(주로 ‘한들이’ 꼴로 쓰여 뒤에 오는 ‘아니다’ 따위의 부정어와 호응하여) ‘조금’의 뜻을 나타내는 말.

¶ 기관지를 앓는 사람이 한들이 아니다.

5. 다음 중 고유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느매기: 물건을 여러 몫으로 나누는 일
- ② 비나리치다: 갑자기 내린 비를 피하려고 허둥대다.
- ③ 가리사니: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나 실마리
- ④ 던적스럽다: 하는 짓이 보기에 매우 치사하고 더러운 데가 있다.

정답 ②

‘비나리’는 걸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하거나 남의 환심을 사려고 아첨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치다가 붙어서 아첨하는 것을 뜻한다.

6. 다음 중 외래어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 ① 벌브(bulb), 옐로우(yellow), 플래시(flash), 워크숍(workshop)
- ② 알콜(alcohol), 로봇(robot), 보트(boat), 씨클(circle)
- ③ 밸런스(balance), 도너츠(doughnut), 스위치(switch), 리더십(leadership)
- ④ 배지(badge), 앙코르(encore), 콘테스트(contest), 난센스(nonsense)

정답 ④

오답 해설:

- ① 옐로우 → 옐로: ‘오우’는 표기하지 않는다.
- ② 알콜 → 알코올: 화학 용어, 씨클 → 서클: 된소리는 원칙적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 ③ 도너츠 → 도넛: 단모음 뒤에 오는 'p, t, k'는 받침으로 붕터 적어야 한다.

7. 다음은 신문 보도와 그에 대한 해당 기관의 해명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문 보도	(1) 유학생 등 재외국민들은 내국인과 달리 아이핀 발급이 어려움 (2)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공공아이핀은 공인인증서나 주민등록증, 거주여권 등으로 발급이 가능하나, 방문(PM)여권을 소지한 유학생, 주재원 등은 발급이 불가하며, 주민등록증이 있더라도 단독세대원은 공공아이핀 발급이 불가능
해명 자료	(1) 유학생, 주재원 등 방문여권 소지자는 본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세대원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나 대리인(가족관계) 신청으로 공공아이핀 발급이 가능하므로 공공아이핀은 해외에서도 이용이 가능 (2) 유학생, 주재원 등은 통상 해외이주 시 본인의 주민등록을 부모나 친인척 주소지로 이전하기 때문에 국내 주소지가 단독세대원인 경우는 거의 없음

- ① 신문 보도에서, 같은 내용을 (1)에서는 개략적으로, (2)에서는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② 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서도 아이핀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③ 해명 자료(1)의 밑줄 친 부분은 접속 대상이 대등하지 않아 부자연스러워진 표현이다.
- ④ 해명 자료(2)는 단독세대원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④

해설: 단독세대원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명했을 뿐, 단독세대원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8. 다음 중 단어의 발음이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 ① 디글이[디그시], 훌이불[훈니불]
- ② 뚫는[뚫는], 밝히다[발키다]
- ③ 핥다[할따], 넓죽하다[넙죽카다]
- ④ 흠만[흑만], 동원령[동 : 원녕]

정답 ①

오답 해설:

- ② 뚫는[뚫는] → [뚫른] : 유음화가 되어야 한다.
- ③ 넓죽하다[넙죽카다] → [넙쭈카다] : 자음 축약이 일어나야 한다.
- ④ 흠만[흑만] → [흥만] : 비음화가 되어야 한다.

9. 다음 중 단어의 짜임이 <보기>와 같은 것은?

<보기>
놀리- + -ㄱ
↓(파생)
손 + 놀림
↓(합성)
손놀림

- ① 책꽂이
- ② 헛소리
- ③ 가리개
- ④ 흔들림

정답 ①

해설: 파생어가 된 후에 최종적으로 합성어가 되는 단어를 고르라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구조를 지닌 것은 ‘책꽂이’이다. ‘꽂이’(파생어)가 ‘책’과 붙어서 ‘책꽂이’라는 합성어가 되었다.

오답 해설:

- ② 헛소리: 헛(접사)+ 소리(어근)=파생어
- ③ 가리개: 가리다(어근)+ 개(접사)=파생어
- ④ 흔들림: 흔들리다(어근)+ ㄹ(접사)=파생어

10. 다음 중 괄호 안의 한자가 옳은 것은?

- ① 정직함이 유능함보다 중요(仲要)하다.
- ② 대중(對衆) 앞에서 연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 ③ 부동산 중개사(重介士)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 ④ 집중력(集中力)이 떨어지지 않도록 숙면을 취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집중력(集中力): 마음이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힘.

오답 해설:

- ① 중요(重要): (일부 명사 앞에 쓰여) 귀중하고 요긴함.
- ② 대중(大衆): 수많은 사람의 무리.
- ③ 중개사(仲介士): 제삼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사람.

11. 다음 중 <보기>와 작품 속 시대적 배경이 같은 것은?

<보기>
오호, 여기 줄지어 누웠는 녀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눠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 바른 두메를 골라 고이 파묻어 떼마저 입혔거니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욱 너그러운 것이로다.

- ① 김주영의 「객주」
- ② 이범선의 「오발탄」
- ③ 박경리의 「토지」
- ④ 황석영의 「장길산」

정답 ②

해설: 이 시는 구상의 ‘초토의 시’다. 이 시는 6.25 전쟁을 배경으로 분단 현실에 대한 아픔과 통일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범선의 ‘오발탄’도 6.25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월남한 한 가족의 비참한 처지를 통하여 분단의 비극성을 증언하고 황폐화된 전후(戰後)의 남한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한 소설이다.

12. 다음 중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주동문	㉠ 아이가 밥을 먹었다.	㉡ 마당이 넓다.
	↓	↓
사동문	㉢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하였다.	㉣ 인부들이 마당을 넓혔다.

- ① ㉠, ㉡을 보니, 사동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군.
- ② ㉠, ㉡을 보니,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다른 문장 성분으로 나타날 수 있군.
- ③ <보기>를 보니, 동사만 사동화될 수 있군.
- ④ <보기>를 보니,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변화할 수 있군.

정답 ③

해설: ‘먹다’는 동사이고 ‘넓다’는 형용사인데 각각 ‘먹이다’, ‘넓히다’처럼 사동사로 만들 수 있으므로 동사만 사동화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1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늘, 바람, 심지어, 어차피, 주전자와 같은 단어들은 한자로 적을 수 없는 고유어이다.
- ② 학교, 공장, 도로, 자전거, 자동차와 같은 단어들은 모두 한자로도 적을 수 있는 한자어이다.
- ③ 고무, 담배, 가방, 빵, 냄비와 같은 단어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우리말처럼 되어 버린 귀화어이다.
- ④ 눈깔, 아가리, 주둥아리, 모가지, 대가리와 같이 사람의 신체 부위를 짐작지 못하게 낮추어 부르는 단어들은 비어(卑語)에 속한다.

정답 ①

해설: 심지어, 어차피, 주전자는 한자어이므로 ①번은 잘못된 설명이다.

심지어(甚至於): ‘더욱 심하다 못하여 나중에는’이라는 의미

어차피(於此彼):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의 뜻

주전자(酒煎子): 물이나 술 따위를 데우거나 담아서 따르게 만든 그릇

14.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 철수 밥 먹는다.
㉡ <u>그 사람이</u> 그런 심한 말을 하다니.
㉢ <u>오늘 내가 본</u> 영화는 세계 10대 명화에 속한다고 한다.
㉣ <u>민한경 씨가</u> 익명의 독지가였음이 밝혀졌다.

- ① ㉠에서 ‘철수’, ‘밥’은 단어이자 어절로서 각각 주어, 부사어의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에서 ‘그 사람이’, ‘그런 심한 말을’은 각각 주어, 목적어 성분이 절로 실현된 것이다.
- ③ ㉢에서 ‘오늘 내가 본’은 관형어 기능을 하며 절로 실현되어 있다.
- ④ ㉣에서 ‘민한경 씨가 익명의 독지가였음이’는 목적어 성분으로서 명사절로 실현되어 있다.

2016. 기출문제 해설

정답 ③

해설: '오늘 내가 본'은 뒤에 오는 '영화'를 수식하는 관형절이며, 관형어 역할을 하므로 맞는 설명이다.

오답 해설:

- ① ㉠에서 '철수', '밥'은 단어이자 어절로서 각각 주어, 부사어의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 '철수', '밥'은 단어이자 어절로서 각각 주어,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 ② ㉡에서 '그 사람이', '그런 심한 말을'은 각각 주어, 목적어 성분이 절로 실현된 것이다. → '그 사람이'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가 관형사이므로 절로 실현된 것은 아니다.
- ④ ㉢에서 '민한경 씨가 익명의 독지가였음이'는 목적어 성분으로서 명사절로 실현되어 있다 → '민한경 씨가 익명의 독지가였음이'는 주어 성분으로서 명사절로 실현되어 있다.

15.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사원 여러분, 이번 중동 진출은 이미 예산이 많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해야만 회사가 삽니다.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있어 심적으로는 불안하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끝까지 함께 갑시다.

- ① 登高自卑
- ② 角者無齒
- ③ 騎虎之勢
- ④ 唇亡齒寒

정답 ③

해설: 기호지세(騎虎之勢):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오답 해설:

- ① 등고자비(登高自卑): 「1」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오른다는 뜻으로, 일을 순서대로 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 「2」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낮춤을 이르는 말.
- ② 각자무치(角者無齒): 뿔이 있는 짐승은 이가 없다는 뜻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재주나 복을 다 가질 수 없다는 말.
- ④ 순망치한(唇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16. <보기>의 문학사적 사실들을 발생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보기>

- ㉠ 「삼대」, 「흙」, 「태평천하」 등 다양한 장편소설들이 발표되었다.
- ㉡ 이광수의 「무정」이 『매일신보』에 연재되어 세간의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 ㉢ 『창조』, 『백조』, 『폐허』 등의 동인지가 등장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민간 신문들이 발행되었다.
- ㉣ 『인문평론』, 『문장』 등 우수한 문학잡지들과 한글 신문 등의 발행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 ㉤ 이인직의 「혈의 누」, 이해조의 「자유종」과 같은 소설들이 발표되었다.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정답 ③

해설:

- ㉠ 「삼대」, 「흙」, 「태평천하」 등 다양한 장편소설들이 발표되었다. → 1930년대
- ㉡ 이광수의 「무정」이 『매일신보』에 연재되어 세간의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 1917년
- ㉢ 『창조』, 『백조』, 『폐허』 등의 동인지가 등장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민간 신문들이 발행되었다. → 1920년대
- ㉣ 『인문평론』, 『문장』 등 유수한 문학잡지들과 한글 신문 등의 발행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 1940년대
- ㉤ 이인직의 「혈의 누」, 이해조의 「자유종」과 같은 소설들이 발표되었다. → 개화기(1900년대) 신소설

17. <보기>는 비치다 에 대한 사전의 뜻풀이이다. 다음 중 각 뜻에 대한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①【…에】①빛이 나서 환하게 되다.
 ②빛을 받아 모양이 나타나 보이다.
 ③물체의 그림자나 영상이 나타나 보이다.
 ④뜻이나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 보이다.
 ⑤투명하거나 얇은 것을 통하여 드러나 보이다.

②【…에/에게 …으로】
 무엇으로 보이거나 인식되다.

③【…에/에게 …을】
 ①얼굴이나 눈치 따위를 잠시 또는 약간 나타내다.
 ②의향을 떠보려고 슬쩍 말을 꺼내거나 의사를 던지시 깨우쳐주다.

- ① ①①: 창문을 종이로 가렸지만 그래도 안이 비친다.
- ② ①③: 만년설이 쌓인 산이 호수에 비쳤다.
- ③ ②: 동생에게 결혼 문제를 비쳤더니 그 자리에서 펄쩍 뛰었다.
- ④ ③①: 글씨를 흘려서 쓰면 성의 없는 사람으로 비치기 쉽다.

정답 ②

해설 : 물체의 그림자나 영상이 나타나 보이다.

¶ 창문에 사람 그림자가 비쳤다./화면에 비친 조국 강산이 너무나 아름답다./그는 수면에 비치는 아침 하늘을 둘러보았다.

오답 해설:

- ① ①①: 창문을 종이로 가렸지만 그래도 안이 비친다. → ①⑤투명하거나 얇은 것을 통하여 드러나 보이다.
- ③ ②: 동생에게 결혼 문제를 비쳤더니 그 자리에서 펄쩍 뛰었다. → ③②의향을 떠보려고 슬쩍 말을 꺼내거나 의사를 던지시 깨우쳐주다
- ④ ③①: 글씨를 흘려서 쓰면 성의 없는 사람으로 비치기 쉽다. → ②무엇으로 보이거나 인식되다.

18.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한글의 제자 원리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초성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는데 ‘ㄱ’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 ② ‘ㄱ, ㄴ, ㄷ, ㅌ, ㅇ’ 5개의 기본 문자에 가획의 원리로 ‘ㅋ, ㆁ, ㆆ, ㄹ, ㅍ, ㅊ, ㅎ’ 총 8개의 문자를 만들었다.

2016. 기출문제 해설

- ③ 문자의 수는 초성 10자, 중성 10자, 종성 8자로 모두 28자이다.
- ④ 연서(連書)는 ‘ㅇ’을 이용한 것으로서 예로는 ‘뽕’이 있다.

정답 ④

해설: ‘연서(連書)’는 훈민정음에서, 순경음(脣輕音)을 표기하기 위하여 순음자(脣音字) 밑에 ‘ㅇ’을 이어 쓰는 일. ‘뽕’, ‘뽕’, ‘뽕’, ‘뽕’ 따위가 있다.

오답 해설:

- ① 초성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는데 ‘ㄱ’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은 ‘ㄱ’이 아니라 ‘ㄴ’이다.
- ② ‘ㄱ, ㄴ, 口, ㅅ, ㅇ’ 5개의 기본 문자에 가획의 원리로 ‘ㅋ, ㆁ, ㅌ, ㄹ, ㅍ, ㅈ, ㅊ, ㅎ’ 총 8개의 문자를 만들었다. → 가획자(加劃字):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이다. 제시된 자음 중에서 ‘ㄹ’은 ‘이체자’에 해당된다.
- ③ 문자의 수는 초성 10자, 중성 10자, 종성 8자로 모두 28자이다. → 훈민정음은 초성(자음) 17자와 중성(모음) 11자로 모두 28자이다.

19.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대화를 하면 할수록 타협점은 커녕 점점 갈등만 커지게 되었다.
- ② 창문 밖에 소리가 나서 봤더니 바람 소리 밖에 들리지 않았다.
- ③ 그 만큼 샀으면 충분하니 가져갈 수 있을만큼만 상자에 담으렴.
- ④ 나는 나대로 갈 테가 있으니 너는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거라.

정답 ④

해설: ‘대로’는 체언 뒤에는 붙여 쓰고, 관형사형 뒤에는 띄어 쓰므로 맞게 사용되었다. 또한 ‘데’는 ‘-것, -곳, -경우’의 뜻일 때는 띄어서 쓰므로 맞게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 ① 대화를 하면 할수록 타협점은 커녕 점점 갈등만 커지게 되었다. → 타협점은 커녕 ‘커녕’은 ‘보조사’이므로 무조건 앞 말에 붙여 써야 한다.

사용되는 용법은 다음과 같다.

(체언 뒤에 붙어) 「1」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밥커녕 죽도 못 먹는다./나무커녕 풀도 없는 황무지가 저렇게 옥담으로 변했다오./비커녕 구름조차 끼지 않는다.

「2」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도리어’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상커녕 벌을 받았다.

- ② 창문 밖에 소리가 나서 봤더니 바람 소리 밖에 들리지 않았다. → 소리밖에 ‘밖에’가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와서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낼 때는 보조사이므로 앞 말에 붙여 쓴다.

- ③ 그 만큼 샀으면 충분하니 가져갈 수 있을만큼만 상자에 담으렴. → 그만큼, 있을 만큼

‘만큼’은 체언 뒤에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관형사형 뒤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참고로 ‘그만큼’은 ‘그만한 정도’의 뜻으로 합성어이다.

20.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한자가 옳은 것은?

- ① 溫古知新 ② 麥秀之嘆 ③ 識者憂患 ④ 左考右眄

정답 ②

해설: 맥수지탄(麥秀之歎/麥秀之嘆):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

오답 해설:

- ① 溫古知新 → 온고지신(溫故知新):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
③ 識者憂患 → 식자우환(識字憂患): 학식이 있는 것이 오히려 근심을 사게 됨.
④ 左考右眄 → 좌고우면(左顧右眄): 이쪽저쪽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앞뒤를 재고 망설임을 이르는 말.